

##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연구\*

김 희 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 현 균<sup>†</sup>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SI-NKR-A)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I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임상 경험과 기존 문헌 고찰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내재화 척도(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2개의 외현화 척도(분노, 품행 문제), 4개의 보충 척도(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총 11개의 소척도를 구성하고, 118개의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 II에서는 탈북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분석과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해 준거 척도와 상관이 높으면서 내용상 일관성이 있는 98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III에서는 최종 척도를 탈북 청소년 190명에게 실시하여 각 소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86명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여 본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소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70 이상을 보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 이상을 보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관은 정신증 척도와 낮은 자존감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에서 .70 이상이었다. 끝으로 본 검사 개발의 의의 및 검사의 특징, 활용 범위 및 추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탈북 청소년, 심리검사,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2년 통일부의 학술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균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Tel : 062-530-2658 / Fax : 062-530-2659 / E-mail : shk2004@jnu.ac.kr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자료(통일부, 2012)에 따르면,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3,374명이며, 이 중 10세에서 19세가 2,742명(12%), 20세에서 29세가 6,398명(27%)을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39%가 청소년 및 초기 성인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연령 정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이탈주민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는 학술적, 임상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탈북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외에도 남한 사회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에 노출되며, 가족 해체, 학력 결손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도 학교 부적응, 정체성 혼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저항이나 비행, 반항, 적대적 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들로 표출되기도 한다.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심리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 청소년은 북한이나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에 노출된다(양계민, 황순택, 2008;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과 이영란(2007)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 응답자 120명 중 식량 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겪은 비율이 63.8%,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심한 긴장감을 경험한 비율이 62.9%, 다른 사람의 고문이나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경우가 53%에 이르렀다. 이처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여자 탈북 청소년은 남자 탈북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같은 내현적 문제를 많이 보이며, 자신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적응적인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지만 불안과 긴장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숙, 2006; 백혜정 등, 2007; 양계민, 황순택, 2008). 이에 비해 남자 탈북 청소년은 일탈이나 반항과 같은 행동 문제를 많이 보인다(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도 낮았다(강효립, 2007).

탈북 청소년은 학업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남북한 교육 체계 및 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해 학력에 차이가 나고, 늦은 취학으로 인한 나이 문제, 상급 과정 진학 문제,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길은배, 문성호, 2003). 탈북 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에 대한 학력을 인정받아 남한의 동등한 학력으로 편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3국 체류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학업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정도의 학년을 낮추어서 입학하고 있는데, 연령의 차이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생활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연령은 높은 반면, 학력 수준은 낮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홍덕기, 2002).

학업 적응의 문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탈북 청소년 중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50% 정도로, 초등학생들의 81%에 비해 매우 낮았다(정진경 등, 2004). 또한, 학교 적응 문제는 정규학교로의 진학을 어렵게 만들고, 높은 중도 탈락률을 초래한다. 이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생이 3.5%, 중학생 12.9%, 고등학생이 28.1%로서, 학년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한만길, 2010). 탈북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적응 문제가 39.9%, 김정고시 20.8%였으며, 경제적인 이유는 5.6%에 불과했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 청소년이 학교 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학력 결손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들의 북한에서의 학력 수준에 관한 연구들(정병호, 2004; 정진경 등, 2004)에 따르면, 인민학교 중퇴가 17.7%~19.6%, 인민학교 졸업 2.9%, 고등중학교 중퇴 45%~51.9%, 고등중학교 졸업이 8%~15.2%였으며, 무학도 11.4%~24%에 이른다. 이러한 비율은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90% 이상이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김희경, 신현균, 2010)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탈북 청소년 중 많은 수가 북한에서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를 중도 탈락한 경험이 있으며, 탈북하여 중국 등지를 떠돌 때에도 공식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학력 결손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편견, 차별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탈북 청

소년은 남한 문화를 동경하면서 남한 문화에 편입하고자 노력하지만,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을 느끼고,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그로 인해 열등감, 대인기피, 소외감, 좌절감과 패배감 등을 겪기도 한다(양영은, 배임호, 2010;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또래에게 말한 비율은 74.6%였지만, 교사의 소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발적으로 말한 경우는 18.2%에 불과했고, 여학생들의 66.7%는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진경 등, 2004).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말하게 되면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고 차별받을까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적응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탈북 청소년의 가족 갈등 문제는 이들이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받게 되는 편견과 다양한 사회제도의 부적응 현상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원인이 있다. 북한 사회에서 습득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와 남한 사회의 민주적인 사회문화적 질서에 빠른 적응을 보이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길은배, 문성호, 2003;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입국 진후에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적응적 문제들은 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저해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 적응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의 약 35%가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문제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 황순택, 2008). 따라서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전문적인 개입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없어 선별과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탈북 청소년의 심리 상태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화된 검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 청소년용(Korean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Adolescent: MMPI-A)이나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 등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들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표준화된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신병리를 평가하는데 신뢰로운 도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 표현 차이 때문에 검사 문항들로 제시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응답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에 편리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자존감, 품행 문제, 학업 문제, 가족 문제 등에 걸쳐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맞춤형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측정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탈북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자

기보고식 심리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은 우울이나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내재화 문제,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그 외에도 가족 문제와 학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탈북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쉬운 형태로 검사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력 결손이 심할 뿐 아니라 남한식의 언어 표현과 지필식 심리검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검사 개발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심리검사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I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영역들을 여러 개의 소척도들로 구성하여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고, 연구 II에서는 문항 분석을 통해 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III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임상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탈북 청소년을 조기 선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 I: 소척도 구성 및 예비 문항 선정

연구 I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상태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소척도와 그에 따른 예비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소척도는 탈북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 및 임상 경험을 참고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탈북 청소년의 주요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는 내재화 영역과 행동 문제가 주를 이루는 외현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이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밝혀진 자존감과 학업 문제, 가족 문제와 드물지만 심각한 심리장애인 정신증을 보충 척도로 구성하여 정서, 행동 문제들 외에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척도별 예비 문항들은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기존의 척도 문항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기존 검사들은 남북한의 언어적 표현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인해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하고, 문장도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검사들의 실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문항수를 100문항 내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20분 내외로 하였고, 응답 방식도 3점 척도(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단순화하여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 법

### 절차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심리검사 도구 개발과 실시 경험이 있는 3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임상 경험과 문헌 고찰을 통해 탈북 청소년의 주요한 심리적 문제 영역을 소척도로 구성하고, 소척도별로 예비 문항 전집

을 구성하였다. 먼저, 해당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 심리검사들의 문항을 검토하였다.

기존 검사들로는 한국판 MMPI-2, 한국판 MMPI-A, K-CBCL, K-YSR 등의 하위 척도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었고, DSM-IV의 관련 장애 진단 준거들을 참조하였다. 또한, 특정한 심리적 문제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들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AI(Beck Anxiety Inventory),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 이선미, 은현정, 1999), Vallerand 등(1992)이 개발하고 안도희, 박귀화, 백광진, 정상인(2007)이 번안한 학업 동기 척도(Academic Motivation Scale: AMS), 학업 스트레스 척도(김동원, 2008)의 문항들도 고려하였다.

기존 검사들의 문항들을 검토한 후 연구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문항들을 각 소척도별로 약 15문항씩 총 160개의 예비 문항 전집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들을 제거하고, 탈북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표현으로 수정하여 각 하위 척도별로 10문항 내외, 총 118 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에 숙달되어 있는 국문학자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로부터 언어 표현과 이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예비 문항의 언어 표현을 수정하였다.

기존 척도들의 언어 표현을 수정한 문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 장래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는 문항은 “내 앞날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로 수정하였고, “매사가 힘들다”는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로 수정하였다. 북한식의 언어 표현을 함께 사용한 예도 있다.

예를 들면,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51번 문항)”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부순다”는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마순다”는 표현을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마순다)”로 병기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임상 경험에 기초하고,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흔히 경험하는 내재화 문제들로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다섯 가지가 포함되었고, 외현화 문제는 분노와 품행 문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특성상 자존감 문제,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신증적 상태는 탈북 청소년에서 흔한 문제는 아니지만,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에서 임상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절차에 따라 각 소척도의 예비 문항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재화 문제에 속하는 우울 척도는 탈북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자신에 대한 불만, 무망감, 자살 생각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항 수정 과정을 거쳐 14문항을 선정하였다. 신체화 척도는 두통이나 위장 증상, 무기력증 등과 같이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2문항을 선정하였다. 불안 척도는 긴장과 걱정, 수면 곤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불안 증상들을 측정하며,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인 예민성 척도는 탈북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민감성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불신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문항을 선정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는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보이는 다양한 불안 증상을 측정하며, DSM-IV의 PTSD 진단 준거인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핵심 증상을 포함하는 11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중 1문항은 우울 척도와, 2문항은 불안 척도와 중복 채점된다.

외현화 문제인 분노 척도는 분노와 적대감, 공격적인 분노 표출 등의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9문항을 선정하였다. 품행 문제 척도는 비행이나 절도, 거짓말, 싸움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측정하며,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충 척도인 정신증 척도는 망상이나 환각, 비현실적인 사고 등의 정신병적 증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7문항을 선정하였다. 낮은 자존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 무능력감, 패배감, 자신감 부족 등과 같은 자존감의 문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1문항을 선정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는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부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학업 문제를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문제 척도는 가족과의 관계 문제나 지지 부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척도 구성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보충 척도로 결정되었다.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척도들을 참고하면서 전문가 3명의 토론을 거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적용하여 적합하고 대표적인 예비 문항들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 II: 문항 분석을 통한 문항 선정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작성한 예비 문항들을 탈북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소척도의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문항 선정은 준거 척도와와의 상관 및 내적 일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검사의 개발 목적이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을 쉽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소척도별 문항을 결정하는 절차에서 기존의 관련 척도와와의 상관을 통한 경험적 문항 선정법이 적합하여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을 선정함으로써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아동, 청소년의 연령 규정은 각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은 13세~21세(이기영, 2002), 9세~24세(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14~24세(조영아 등, 2011)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및 동법 제45조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연령을 14세부터 24세의 중고등학생으로 정의하였다. 동법 제 45

표 1. 문항 선정을 위한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빈도	%
성별	남	70	43.8
	여	90	56.2
연령	14~16세	24	15.0
	17~19세	89	55.6
	20~24세	47	29.4

조 1항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25세 미만의 연령에 입학, 편입한 자를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력 차이 및 현실 여건으로 인해 20세를 넘어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문항 선정을 위한 연구 참가자는 하나둘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186명이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했다. 남학생이 70명(43.8%), 여학생이 90명(56.2%)이었고, 14세~16세 24명(15.0%), 17세~19세 89명(55.6%), 20~24세 47명(29.4%)이었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 청소년용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 청소년용(MMPI-A)은 김종술,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2005)이 국내 표준화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들을 측정하는 4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척도인 가족문제 중

가족내 소외 척도 11문항, 학교문제 중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MMPI-A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임지영 등(2006)은 이 도구가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간이정신진단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 강박증, 대인 민감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증상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정신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는 .77~.89이다.

###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는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이다.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위축, 신체 증상, 우울 및 불안)와 외현화 문제(비행, 공격성)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청소년 자신이 평정한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63~.85였다(하은혜, 2005).

### 정신과적 진단 선별 질문지

정신과적 진단 선별 질문지(Psychiatric Diagnostic Screening Questionnaire: PDSQ)는

DSM-IV의 축 I 장애들을 진단하기 위해 Zimmerman과 Mattia(2001)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지로서, 최정식(200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유형은 '예' 또는 '아니오'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1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PDSQ의 진단적 일치도 Cohen's kappa는 .69였다.

###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89였다.

### 절차

각 소척도별로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한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각 척도들의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들을 동시에 실시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그러나 상관이 .30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용상 중요한 문항들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일부 포함시켰다(예를 들면, 과거의 괴로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피한다, 무서운 꿈을 자주 꾀다, 신경질적이며 쉽게 깜짝 깜짝 놀란다, 다른 사람을 헐박한 적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공

부를 잘 할 자신이 없다,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가족은 자주 싸우는 편이다 등).

다음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각 소척도의 문항들과 소척도 총점 간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단, 척도 특성에 따라 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문항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종 척도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예를 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곤 한다).

### 결과 및 논의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 문항들 중 20문항이 부적합하여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98문항을 선정하였다. 삭제된 문항수는 우울 척도 3문항, 신체화 척도 2문항, 불안 척도 1문항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에서 우울 및 불안 척도와 중복 채점되었던 3문항은 준거 척도인 PDSQ의 PTSD 척도와 상관이 낮아 삭제되었다. 대인 예민성 척도 11문항과 분노 척도 9문항, 정신증 척도 7문항은 제외된 문항 없이 모두 포함되었다. 품행 문제와 낮은 자존감 척도에서는 각각 2문항씩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9문항이 선정되었으며, 학업 스트레스 척도에서는 6문항, 가족 문제 척도에서는 4문항이 각각 삭제되었다.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낮아 대부분 삭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척도는 다섯 개의 내재화 척도(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두 개의 외현화 척도(분노, 품행 문제), 네 개의 보충 척도(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총 98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소척도 문항들의 준거 척도와의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문항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울 척도(Depression: DEP)

우울 척도에 포함된 14개의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우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문항(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행복하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30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하고, 총 11문항으로 우울 척도를 구성하였다.

#### 신체화 척도(Somatization: SOM)

신체화 척도에 포함된 12개의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신체화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두 문항(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화가 안된다(자꾸 체한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은 .30을 넘었으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에 미치지 못하여서 제거하였다. 신체화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불안 척도(Anxiety: ANX)

불안 척도에 포함된 12개의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불안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한 문항(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도 쉽게 깬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은 .30을 넘었으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두 문항(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은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높아 포함하였다. 불안 척도는 총 11문항이다.

대인 예민성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IS)

대인 예민성 척도에 포함된 11개의 예비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대인예민성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모든 문항들이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양호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 역시 모두 .30 이상을 보여서 제외된 문항 없이 11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Post Traumatic Stress: PTS)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에 포함된 11문항과 PDSQ의 PTSD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우울 및 불안과 중복되는 세 문항(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도 자주 깬다, 내 앞날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이 모두 낮아서 제거하였다. 나머지 8문항들 중 일부 문항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은 다소 낮았으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42~.62로 양호하여 최종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노 척도(Anger: ANG)

분노 척도에 포함된 9개의 예비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적대감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준거 척도와의 상관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양호하였다. 따라서 제외된 문항 없이 총 9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품행 문제 척도(Conduct Problem: CON)

품행 문제 척도에 포함된 11개의 예비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K-YSR의 비행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두 문항(다른 사람에게 무기(몽둥이, 벽돌, 깨진 병, 칼)를 사용한 적이 있다. 욕을 자주 한다)은 문항-총점 간 상관은 양호하였으나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그 외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거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문항들이 있었지만, 승인 반응을 쉽게 하기 어려운 척도의 특성과 문항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신증 척도(Psychosis: PSY)

정신증 척도에 포함된 7개의 예비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SCL-90-R의 정신증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준거 척도와의 상관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양호하였지만, 일부 문항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역학적 특성과 정신병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외된 문항 없이 총 7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낮은 자존감 척도(Low Self-Esteem: LSE)

낮은 자존감 척도에 포함된 11개의 문항들

과 준거 척도인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두 문항(나는 장점(웃점)이 많다, 나도 남들만큼 똑똑하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은 양호하였지만,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낮았다. 이는 이 문항들이 긍정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 문항을 제거하고 총 9문항으로 낮은 자존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Academic Stress: ACA)**

학업 스트레스 척도에 포함된 11개의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MMPI-A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여섯 문항(나의 진로와 미래가 걱정된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좋다, 학교 가기가 두렵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두렵다, 학업 성적 때문에 걱정한다)은 상관성이 낮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학업 스트레스 척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외에도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반면, 준거 척도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섯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문항들은 내용 면에서 학업과 관련된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양호하여 학업 스트레스 척도로 최종 구성하였다.

**가족 문제 척도(Family Problem: FAM)**

가족 문제 척도에 포함된 12개의 문항들과 준거 척도인 MMPI-A의 가족내 소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두 문항(우리 가족은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우리 가족은 나의 단점을 자주 지적한다)은 준거 척도와의 상관성이 낮았다. 또한 두 문항(나는 우리 가족이 싫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은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남은 문항들 중 일부는 준거 척도와의 상관성이 낮았지만,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양호하여 네 문항만 제거한 후 8문항을 최종 가족 문제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분석 과정을 통해 예비 문항들 중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즉, 11개 소척도별로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 척도와의 상관성이 높으면서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함으로써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제작하는 절차를 적용하였다.

**연구 III: 신뢰도 분석**

연구 III에서는 연구 II에서 준거 척도와의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98문항을 탈북 청소년에게 실시하여 각 소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문항 분석을 통해 선정된 98문항을 하나들

표 2.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빈도	%
성별	남	79	41.6
	여	111	58.4
연령	14~16세	43	22.6
	17~19세	101	53.2
	20~24세	46	24.2

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200명에게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표 2)은 남학생이 79명(41.6%), 여학생 111명(58.4%)이었고, 14~16세 43명(22.6%), 17~19세 101명(53.2%), 20~24세 46명(24.2%)이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에 참여했던 탈북 청소년들 중 90명에게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44명(51.2%), 여학생 42명(48.8%)이었고, 14~16세 13명(15.1%), 17~19세 52명(60.5%), 20~24세 21명(24.4%)이었다.

### 절차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 각 소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 그리고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관을 분

석하였다. 검사-재검사 실시 간의 시간 간격은 2주였다.

## 결과 및 논의

각 소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를 구해본 결과, 11개 모든 소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70을 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고,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 II에서 일부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다소 낮았던 데 비해 연구 III에서는 모든 상관이 .30을 넘었다.

우울 척도(11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8이었다.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신체화 척도(10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6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불안 척도(11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9였고,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대인 예민성 척도(11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6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8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1이었고, 모든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4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

표 3. 소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N=190)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분노	품행 문제	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88	.86	.89	.86	.81	.88	.74	.76	.89	.82	.85

표 4. 소척도별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관(N=86)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분노	품행 문제	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83***	.73***	.82***	.78***	.84***	.76***	.79***	.62***	.69***	.76***	.73***

\*\*\*  
p<.001

하였다.

분노 척도(9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8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품행 문제 척도(9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74였고, 모든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정신증 척도(7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76이었고,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낮은 자존감 척도(9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9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5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2였고,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가족 문제 척도(8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는 .85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의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각 소척도별 검사와 재검사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정신증과 낮은 자존감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에서 상관이 .70을 넘어 측정의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다. 정신증 척도와 낮은 자존감 척도의 경우에도 .60을 넘어 비교적 양호하였다. 검사-재검사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문항-총점 간 상관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소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의 양호하였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 역시 비교적 양호하여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자기보고식 심리상태 검사인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검사는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고, 응답이 용이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심리검사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의 토론을 거친 합의를 통해 예비 문항을 작성하고, 최종 문항 선정 및 신뢰도, 타당도 확보를 위해 세 차례의 자료 수집에 근거한 경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교육 및 임상 장면에서 탈북 청소년이 흔히 나타내는 심리적 문제들과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척도와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를 탈북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에 대해 각 소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분석하고, 검사-재검사 분석을 통해 본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I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흔히 보이는 심리적 문제 영역을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보충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3명의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쳤다.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들인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는 분노와 품행 문제가 포함되었다. 낮은 자존감과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를 보충 척도로 구성하여 정서 및 행동 문제 이외에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증 척도는 탈북 청소년에서 빈도가 높지 않지만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보충 척도에 포함하여 임상적인 평가와 개입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II에서는 문항 분석 과정을 통해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11개 소척도별로 구성된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높으면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높은 문항들로 98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III을 통해 최종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소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74~.89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도 .3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정신증 척도와 낮은 자존감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에서 .73~.84를 보여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정

신증 척도와 낮은 자존감 척도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 역시 각각 .62와 .69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본 검사가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내용 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 및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나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 문제를 측정하는 심리검사 도구(신현균, 김희경, 임지영, 2010)가 개발되었지만,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탈북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신체화 증상, 대인 예민성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분노와 품행 문제와 같은 행동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검사를 활용하면 탈북 청소년이 국내 입국 과정이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력 결손이나 학업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자존감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에 관해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는 탈북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응답 범위를 단순화함으로써 실시와 응답이 간편하다. 총 98문항을 실시하는데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의 정

도를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다수의 탈북 청소년들 중 심리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검사를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 전후에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나 개입의 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는 위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및 검사 사용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기보고식 형태의 검사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 즉, 탈북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 과장이나 증상 은폐 탐지에 취약할 수 있고, 성격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검사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단시간에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심리검사 도구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두 학교 재학생들이어서 학교 밖 탈북 청소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본 검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즉, 추후에 본 검사를 실제 현장에 사용하면서 다양한 척도들이나 준거 집단을 적용하여 각 소척도들의 준거 타당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척도 제작시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선정하였지만, 최종 척도의 타당도를 재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본 검사가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선별해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이나 남한 청소년들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점수 해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성과 연령별 기준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검사가 탈북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상담 효과 연구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어 향후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 생활 기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 정도, 성과 연령에 따른 적응 상태, 이들의 심리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검사를 사용해 탈북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특성이 연구된다면, 이들의 성별, 연령별, 혹은 증상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효림 (2007). 탈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2), 295-308.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 163-186.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김동원 (2008). 중학생을 위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2005). 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 서울: 마음사랑.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6.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183-211.
- 신현균, 김희경, 임지영 (2010).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777-798.
- 안도희, 박귀화, 백광진, 정상인 (2007). 의과대학생들의 학업동기,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19(1), 59-71.
-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 333-358.
- 양영은, 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1, 189-224.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응: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9(3), 693-718.
- 이기영 (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 174-224.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 243-271.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3), 501-513.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 309-341.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임지영, 한경희,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김중술 (2006). 한국판 MMPI-A의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565-586.
- 정병호 (2004). 북한 기근의 인류학적 연구. 통일문제 연구, 16, 109-140.
-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 209-239.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 33-57.
- 최정식 (2009). 한국판 정신과적 진단 선별 질문지(Psychiatric Diagnostic Screening

- Questionnaire; PDSQ)의 진단적 타당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 하은혜 (2005).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K-YSR)의 신뢰도와 타당도. 아동연구, 18, 83-104.
- 한만길 (2010).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덕기 (2002).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Derogatis, L. R. (1977). *SCL-90-R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ere, N. M., Senécal, D., & Valliè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 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4), 1003-1017.
- Zimmerman, M., & Mattia, J. I. (2001). A self-report scale to help make psychiatric diagnoses: The psychiatric diagnostic screening questionnaire. *Archive General Psychiatry*, 58, 787-794.
- 원고접수일 : 2013. 02. 12.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01.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5. 13.  
게재결정일 : 2013. 06. 12.

## Development of the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PSI-NKR-A)

**Hee Ky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aimed at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ventory of psychological symptom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the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PSI-NKR-A). After review of previous studies, we derived 11 subscales and 118 preliminary items: five Internalization Scales(Depression, Somatizati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Post-Traumatic Stress), two Externalization Scales(Anger and Conduct Problem), and four Supplementary Scales(Psychosis, Low Self-Esteem, Academic Stress, and Family problems). We administered the 118 preliminary items to 186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and examined correlation of the items with some criterion scales and th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resulting in a final version of the PSI-NKR-A, comprising 98 items and 11 subscales. We then administered the final version of the PSI-NKR-A to 190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order to assess i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original participants, 86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retest study. Results of analyses showed that the PSI-NKR-A had hig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test-retest reliability. Finally, applications of the PSI-NKR-A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sychological Inventory, PSI-NKR-A, reliability, validity

부록. 각 소척도의 문항 내용, 준거 척도와의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

척도명	번호	문항 내용	연구 II		연구 III	
			준거척도와의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우울	25	내 앞날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528	.484	.430	
	45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638	.580	.565	
	58	울고 싶을 때가 많다	.593	.672	.651	
	14	나는 우울하다	.607	.545	.639	
	66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520	.561	.625	
	5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519	.524	.697	
	9	슬플 때가 많다	.634	.662	.629	
	65	죽고 싶을 때가 있다	.622	.664	.630	
	8	죄책감을 쉽게 느낀다	.531	.612	.538	
	43	나는 남보다 못한 것 같다	.414	.521	.576	
	29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	.455	.521	.551	
	신체화	30	어지럼증이 있다	.547	.454	.694
3		이유없이 피곤하다	.457	.539	.474	
64		몸이 쑤시고 아프다	.498	.599	.565	
5		머리가 아프다	.474	.575	.576	
22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384	.319	.552	
15		배가 아프다	.569	.519	.473	
28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456	.470	.572	
12		허리가 아프다	.626	.513	.496	
13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472	.531	.674	
37		몸에 기운이 없다	.512	.612	.621	
불안		42	쉽게 긴장이 된다	.531	.529	.657
		16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449	.535	.621
	48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495	.522	.587	
	6	사소한 일에 잘 놀란다	.463	.516	.509	
	46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443	.386	.581	
	57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452	.569	.716	
	4	쉽게 초조해진다	.530	.592	.563	
	24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576	.542	.612	
	1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82	.381	.502	
	39	자주 불안하다	.648	.646	.745	
	62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한다	.444	.505	.603	

대인 예민성	59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394	.409	.548
	50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다	.604	.723	.663
	53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605	.596	.611
	11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642	.660	.478
	55	남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색하다	.453	.448	.514
	23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336	.474	.621
	10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354	.496	.537
	34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426	.470	.479
	2	낯선 사람과 말하기 어렵다	.498	.411	.421
	32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다	.504	.543	.607
외상후 스트레스	36	사람들은 나에게 불친절하다	.532	.605	.503
	31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다	.314	.421	.531
	35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일이 자주 생각난다	.292	.532	.614
	33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일이 마치 다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221	.519	.596
	19	과거의 괴로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피한다	.259	.579	.486
	38	과거의 괴로운 사건이 떠오를 때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가슴이 떨린다	.268	.532	.633
	26	무서운 꿈을 자주 꾀다	.196	.416	.500
	67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나 화가 난다	.359	.435	.392
분노	63	신경질적이며, 쉽게 꺾꺾꺾 놀란다	.191	.622	.460
	40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자주 한다	.333	.332	.453
	51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마순다)	.535	.478	.519
	41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가 많다	.416	.502	.664
	18	욕을 퍼붓고 싶을 때가 많다	.570	.630	.679
	61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481	.504	.649
	27	누군가를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454	.473	.645
	21	무언가를 부서버리고 싶다	.547	.606	.690
	44	자주 화가 치밀어 오른다	.385	.403	.743
	7	나는 쉽게 화를 내는 편이다	.643	.580	.531
품행 문제	91	다른 사람을 헐뜯은 적이 있다	.285	.442	.508
	83	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편이다	.285	.440	.334
	90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	.334	.382	.326
	72	친구들이 시켜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다	.577	.677	.362
	77	거짓말을 자주 한다	.487	.429	.460
	76	일부러 불을 낸 적이 있다	.552	.484	.441
	78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288	.370	.405
	74	학교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다	.464	.444	.380
	92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298	.308	.441

정신증	56	내 생각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484	.362	.517
	52	누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다	.611	.547	.488
	47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알 것 같다	.345	.470	.484
	17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만 같다	.457	.335	.459
	49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린다	.421	.403	.450
	60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269	.392	.548
	20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곤 한다	.404	.257	.412
	낮은 자존감	85	나 자신이 불만족스럽다	-.425	.543
86		나는 무능력하다	-.355	.429	.730
80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다	-.361	.426	.474
71		나는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다	-.542	.621	.605
87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443	.526	.638
94		나는 실패한 사람 같다	-.490	.552	.647
70		나는 불행한 사람 같다	-.357	.389	.605
98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들을 쉽게 포기한다	-.397	.495	.728
학업 스트레스	68	나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459	.536	.655
	81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없다	.280	.601	.637
	96	학교생활이 지겹다	.430	.323	.620
	93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303	.426	.612
	75	공부를 하기가 싫다	.449	.465	.631
가족 문제	95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390	.340	.540
	79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274	.478	.378
	82	우리 가족은 내 말을 무시한다	.325	.629	.667
	73	우리 가족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422	.627	.658
	88	부모님은 사사건건 잔소리 한다	.249	.600	.531
	84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557	.537	.753
	97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403	.704	.604
	69	우리 가족은 자주 싸우는 편이다	.278	.465	.446
89	힘들 때 가족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	.486	.636	.670	